

도쿄올림픽, 코로나19 여파로 연기 확정

세계 각국 '환영·지지'

ANOC "전적인 지지"
USOPC "올바른 결정"
OCA 등도 환영 표명



25일 일본 도쿄의 오다이바 해양공원 앞에 피어나는 벚꽃 뒤로 오륜 조형물이 보인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보다는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보고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화 회담에서 올림픽의 1년 연기를 확정할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 도쿄올림픽 연기된 가운데 세계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4일 성명을 내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1년 정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5일 올림픽 소식을 다루는 인사이드게임즈에 따르면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는 성명을 내고 올림픽 연기 결정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ANOC는 "(올림픽 연기가) 많은 올림픽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선수들과 이해관계자들의 건강이 최우선 가치이고, 다른 모든 고려 사항을 넘어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수들과 NOC에 올해 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성을 제공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쿄올림픽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도 올림픽 연기 결정을 반겼다.
USOPC는 선수들에게 "올여름은 여러분의 노력과 인생의 꿈이 절정에 달할 예정이었지만,

경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공동체와 서로를 돌보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당신의 순간은 우리가 다시 안전하게 모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7월에 열린다면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며 NOC 중 가장 먼저 불참을 선언했던 캐나다올림픽위원회(COC)는 "올림픽 연기 발표에 감사하다. 선수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국올림픽위원회(BOA)는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라며 "국가와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계속 준비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연기는 옳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올림픽위원회(E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등도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후세인 알리 알 무살람 OCA 사무총장은 "지금 전 세계 올림픽 스포츠가 단결과 연대를 보여주며,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 팀이 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뉴시스

청소년 스포츠안전캠프 운영 성과 '우수'

전북체육회, 전국 3위 차지... 다문화가정 등 우선 모집
안전교육·체험교실 등 다양한 스포츠 이론·실기 수업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 최근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실시한 '2019 생활체육안전교실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 사업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5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종합 점수 91점(운영적성성 평가 75.2점·만족도 평가 15.8점)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 점수는 80.4점이다.



지난해 여름 부안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 전북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

전북체육회는 지난해 여름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스포츠활동 교육을 심어주기 위한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를 부안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했다.
도내 초·중·고 학생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수별 1박2일씩 2기수로 나눠 운영했다.
특히 소외되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우선 모집했고, 안전교

육과 체험교실 등 다양한 스포츠 이론과 실기 수업을 벌였다.
전북체육회는 참가자 선정 방법과 인원, 목적 등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캠프 운영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서바이벌 양궁과 요트체험, 클라이밍 등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면서 교육생의 연령과 체격에 맞는 난이도를 운영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전북체육회는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흡한 사안을 개선해, 올해 스포츠안전캠프는 남원지리산유스캠프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스포츠안전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바흐 IOC 위원장 "도쿄올림픽, 코로나19 극복 축하하는 자리 되길"

"성화는 일본에 두기로... 새로운 개최 시기는 조직위가 결정할 문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이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랐다.
바흐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직후인 24일(현지시간) 전 세계 뉴스통신사와의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바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현 상황을 받아들이자는데 동의했다"며 "선수와 올림픽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또 국제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 총리와 나는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례없는 위기를 극복한 뒤 열리는 인류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쿄올림픽 성화는 전 세계가 함께 지니고 있는 어두운 터널 끝의 빛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화를 그대로 일본에 두기로 한 가운데 바흐 위원장은 "성화가 우리 약속의 증표이자 희망의 상징이라고 판단해 일본에 두기로 했다. 올림픽 명칭을 '2020 도쿄올림픽'으로 유지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했다.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표하지 않던 바흐 위원장은 지난 19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한 발 물러섰고, 결국 일본 측과 협의 끝에 연기를 결정했다.
바흐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을 연기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바흐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에 가장 큰 의문점은 일본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전 세계 선수들을 맞이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시에는 일본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4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하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 커다란 파도가 밀려왔다. 특히 최근 며칠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며 "아프리카 대륙에도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됐다. 세계 다른 지역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봤다"고 전격 연기 결정을 내린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아베 총리와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흐 위원장은 "새로운 개최 시기는 IOC 조정위원회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개최 시기는 수많은 논의의 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IOC 조정위원회가 각 국제경기연맹(IF)과 의견도 조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뉴시스

전북축구협회, 30일 한철 캠페인 동참

전북축구협회(회장 김대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 현장의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는 30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사랑의 한철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헌혈자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개인헌혈자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대한축구협회의 한철 행사와 연계해 도내 축구인들도 수혈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임직원을 비롯한 축구지도자 및 심판, 그리고 전주시민축구단 선수들 모두 한철 행사에 함께 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과 투병중인 경남 밀성초등학교 축구부 김태수 선수를 돕기 위한 B형 혈소판 지정 헌혈도 안내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